



이번에도... 논의 테이블 못 오른 4·3특별법

국회 행안위, 어제 법안소위 열고 2건만 심의·의결
개정안 상정 또 무산... “바로 처리가능 법안만 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회(이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안건 심의에 나섰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4일 국회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28일 열린 뒤 두 달여 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법안소

위 안건으로는 여야 의원들이 심사에 합의한 총 36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심의된 이후 3개월 가까이 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소속 이재익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가진 제주4·3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뒤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특별히 당 지도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을 향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어제 선거구 획정이 의장에 제출돼 전체회의를 열게 되면서 소집했다”며 “오후 본회의 때문에 여야 쟁점없이 바로 처리가능한 법안만 심의하기로 해 2건만 심의·의결했다”고 말했

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추가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됐으며 지난해 4월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상정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날 강창일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겼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된 이후 행안위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약 제안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 등
총선 출마자에 공약화 촉구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분권협의회(협의회장 김진호)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와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정책공약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개헌’ 약속 이행이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해충돌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다시 총선을 맞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할 제주 국회의원이라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해 앞장서 노력해주시리라 확신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국제자유도시 완성 노력,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첨병 역할을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국제안전도시 불구
범죄·사고 등 빈발

▶1면에서 계속 안전전문가들은 제주가 범죄 및 생활사고 등 안전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 타지역 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가 많은데다, 건설업 종사자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은 등 사회구조적인 특수성을 꼽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과 장기체류자 등 유동인구 비중이 크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4·15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제주특성에 맞는 안전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지역 교통현안 및 정책 산책-제주도는 대중버스 준공영제에 이어 대중교통 중앙(전용)차로제,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대중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그동안

도민사회와 언론들이 ‘밀 빠진 독’,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팔겠다’라며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시행 2년만에 성과감사결과를 진행했고, 그 결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하고,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도 추가 채용했다. 이 때문에 2018년 재정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앞으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은 2023년 시점 기준으로 적게는 1120억원 많게는 1230억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도감사위는 분석했다.

도는 중앙로(광양로터리-아라초등학교 로터리)에 도입된 버스중앙차로를 앞으로 1단계로 서광로(광양로터리-해태동산, 3.0km)를 신설하고, 2단계로 동광로(광양로터리-국립제주박물관 2.1km)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승용차량의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등 도민사회 반발도 우려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원도심을 비롯한 상당수 도민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호소하는 등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도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에 따른 교통난 완화 효과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론3사 공동취재단>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성명·연령·정당·직업·경력 순

▶제주시갑 ▶문대탄
▶81 ▶우리공화당
▶정당인 ▶전 동아일보 기자, 전 제주신문 상임논설위원



민주 비례대표 후보 48명 압축
이상이 제주대 교수 포함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더해진 주당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 심사를 통과해 국민공천심사단의 투표 후보자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후보자 면접 및 심사를 통해 총 128명의 공모후보자 중 일반경쟁분야 40명·제한경쟁분야(여성장애인, 외교·안보, 취약지역) 8명의 후보를 압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수는 일반경쟁분야인 보건복지 분야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고, 이 분야에서는 총 4명의 후보가 면접심사를 통과했다. 이 교수와 경선에 출마한 메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정다운 대표는 40인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선택
2020

제주의 미래 D-4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브리핑

<정당·성명·가나다 순>

“청소년 다양한 활동 지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제주시갑 김영진 예비후보

제주시갑 양길현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김영진(사진) 예비후보는 4일 “청소년의 삶이 풍요로운 사회 조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지원돼야 한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민생당 양길현(사진) 예비후보는 4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제왕적 도지사의 과부하를 줄이고 당장이라도 일선 대민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행정시장을 4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여야가 손잡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학교비정규직 대책 시급”

“부상일 후보 물갈이 대상”

제주시갑 고병수 예비후보

제주시을 김효 예비후보

정의당 고병수(사진) 예비후보는 4일 “코로나19로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3주일 연기하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생계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달리하는 교육청 및 교육부의 조치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미래통합당 김효(사진) 예비후보는 4일 “부상일 예비후보는 물갈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은 대선의원원과 원외대선 출마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고 있다”며 “부 예비후보도 세 번이나 출마했지만 도민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물갈이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송은범기자



“중앙과 수입 농민 직격탄”

“한일협정 어획량 타격을”

제주시을 부상일 예비후보

서귀포시 강경필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사진) 예비후보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중국산 양파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달 초 중국산 양파 6000t 수입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때에 농심을 시켜먹게 타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미래통합당 강경필(사진) 예비후보는 4일 “조속히 한일어업협정 어획량 협상을 재개, 지난 4년간 어획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해 어획량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대 연승어선 등 140여척이 갈치 등 1만여t을 어획하지 못해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미숙기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에서는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술내음)에 참여하실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0년 3월 3일(화) ~ 3월 10일(화)
- 모집부문
식물벽 설치 시공원
- 근무시간
월 25시간, 주 2~3회, 일 2시간 30분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여대상
만 60세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
- 신청장소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 사무실 (직접방문접수)
제주시 용담로 128, 2층(용담2동)

상담전화 : 742-0606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

그랜드보청기

정지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 브랜드 50~60%대할인!!

샅출돌 훈저 전화 주심서! 기다렸수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1.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2.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그랜드보청기는 고객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쌍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와이드스 보청기 제주센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드스 제품
- 왜! 와이드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